____월 ____일

다음은 기사의 일부분입니다. 소리 내어 기사를 읽고 또박또박 베껴 써 보세요.

(생략) 사실 조직 문화는 무슨 교육을 하고 구호를 외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. 핵심은 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다. '침묵의 동맹'을 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. 예를 들면 교황청에서 고안해 서구에선 일반 토론장에까지 흔히 등장하는 '악마의 변호인(devil's advocate)'처럼 어떤 자리에 일부러 반대 의견을 내는 구성원을 두는 것이다. '노맨(No-man)'을 제도화하자는 얘기다.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을 다채롭게 디자인하고 실행할 때 견고한 구(舊)체제를 혁파할 수 있다.

– 조선일보 2017년 1월 27일





이 기사의 제목은 무엇일까요? 알맞은 제목을 써 보세요.

정답은 100쪽에 있습니다.



오늘 읽은 신문 기사 중 마음에 드는 문장을 써 보세요.